

# 瞿秋白的 《新中國文案》 研究\*

金尙源\*\*

---

◁ 목 차 ▷

- I. 들어가는 글
  - II. 《新中國文案》의 구성과 내용
    - 1. 新中國文의 趣旨
    - 2. 新中國文의 字母
    - 3. 新中國文의 規則
    - 4. 新中國文의 拼音과 漢字 讀音 對照
  - III. 나오는 글
- 

## I. 들어가는 글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이 지향해 나가야 할 새로운 좌표를 명확하게 확립해주었다는 점에서 한어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1930년대 초반 중국의 새로운 사회·정치적 주체로 기획된 대중들에게 언어와 문자를 창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당면한 사회 정치적 변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려는”<sup>1)</sup> 시도였다. 또한 그것은 기존의 여타 방안들과는 달리 한자의 독음이 아니라 대중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구어를 병음자모로 표기하는 데 중점을 둔 방안이었다. 이처럼 그것은 대중들이 실제로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언어와 문자를 확립하여, 그것을 매개로

---

\* 본 논문은 2010년도 2학기 한양여자대학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됨

\*\* 한양여자대학 중국어과 조교수

1) 拙稿, 〈瞿秋白的 '라틴화 新文字 方案' 연구〉, 《中國文學研究》 第40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2010. 6. 250쪽.

대중들의 의식을 발전시키고, 대중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중국이 당면한 사회변혁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구추백은 1930년 1월 모스크바에서 《中國拉丁化的字母》를 통해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기본 취지와 규칙, 사례들을 처음 소개한 이래로 1932년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논의 과정을 통해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어음과 문장구조, 어휘와 문체 등의 문제는 '현대적 공통어'<sup>2)</sup> 논의로, 문자제도와 서사언어의 문제는 '新中國文'<sup>3)</sup> 논의로 구체화시켜 나갔다.<sup>4)</sup> 1932년 12월에 완성한 《新中國文草案》은 바로 이러한 관련 논의의 최종 완결본으로서 '현대적 공통어의 신중국문'을 구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각종 규칙들과 구체적인 방안, 한자와 신중국문 참조표 등을 담고 있다.

이처럼 《新中國文草案》은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구체적인 윤곽과 체제, 그리고 규칙과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新中國文草案》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취지와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제시하고 있는 어문체계가 새로운 서면어로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新中國文草案》의 구성과 내용

《新中國文草案》은 신중국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緒言〉, 신중국문의 자모에 대한 설명과 예를 담고 있는 〈新中國文字母表〉와 〈新中國文聲母表〉,

- 2) 구추백이 말하는 '현대적 공통어'는 기존에 존재하는 언어가 아니라 각 대도시의 언어가 혼합되고 정치·문화 분야의 공통어가 형성되고 있는 당시의 추세에 근거한 것으로서, 단음자와 동음자 및 성조 기능의 감소, 방언 단어와 문화적 단어 및 외국 단어의 수용, 문언 어근의 백화화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조만간 형성될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瞿秋白, 《新中國的文字革命》, 《瞿秋白文集·文學編3》, 人民文學出版社, 1985. 300쪽 참조.
- 3) 구추백은 병음제도를 채택하고 '공통어(각 지방의 공용어)'를 대표하는 어문을 '新中國的普通話文', 줄여서 '新中國文'이라고 했다. 瞿秋白, 《新中國文草案》·〈緒言〉, 《瞿秋白文集·文學編 3》, 424쪽.
- 4) 〈瞿秋白의 '라틴화 新文字 方案' 연구〉 II장 참조.

〈新中國文韻母表〉, 신중국문의 각종 규칙과 설명을 담고 있는 〈拼音規則〉과 〈書法大綱〉, 〈文法規則〉, 〈拼音和書法的說明〉, 그리고 신중국문의 병음과 한자 독음을 대조 검토해 볼 수 있는 〈新中國文拼音表〉와 〈漢字檢音表〉가 수록되어 있다.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新中國文的趣旨

신중국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緒言〉에는 당면한 어문현실에 대한 진단과 병음제도의 시행 가능성, 공통어문과 방언문의 이원화 계획 등이 담겨 있다.

그는 먼저 당면한 어문현실에 대해 한자의 복잡함과 난해함, 구두어와 피리된 문언과 거짓 백화, 거의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문자와 언어 등이 대중들의 자유로운 언어 문자 운용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한자를 폐지하고 병음제도를 채용하는 철저한 문자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자를 폐지하고 병음문자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이 소위 ‘正音’을 표기하고 ‘국어’의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각기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대중들에게는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비해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대중들의 실제 구어를 병음문자로 표기하려던 것이었다. 즉 그것은 대중들이 자신의 말소리를 그대로 문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전의 방안들보다 훨씬 두터운 대중적 기초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sup>5)</sup>

한편 이러한 구추백의 진단과 해법 제시는 한자의 형상성이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한자는 그 형상성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소수 지식인들만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으며, 그 때문에 소수가

5) 矛盾, 〈文藝大衆化的討論及其他〉, 文振庭 編, 《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 上海文藝出版社, 1987. 422쪽 참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지식을 독점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배 권력을 형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사실 읽고 쓰기 어려운 한자는 단순히 난해함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한다. 인간과 세계를 매개해야 할 문자가 오히려 둘 사이를 가로막는 '불투명'한 미디어가 되고 마는 것이다.<sup>6)</sup> 따라서 구추백에게 있어서 대중들의 실제 구어에 기초한 병음문자 방안으로 한자를 대체해 나간다는 것은 대중들이 종래의 정치적 소외에서 벗어나 사회변혁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다져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구추백은 '신중국문'을 구축해 나감에 있어서 각종 방언들이 난립하고 있는 중국의 어문 현실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나름의 낙관적인 근거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실제 구두어에 기초한 '진정한 백화문'의 경우에는 문법과 어휘, 독음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미 병음제도를 채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동소이한 독음을 병음자모로 표기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독음을 고정적이고 비슷한 독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각 지역의 통용 문자는 해당 지역의 공통어, 나아가 전국적 공통어와 점차 '일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구추백은 어느 한 지역의 언어를 공통어의 표준으로 삼아 전국의 언어를 통일시켜 나가는 소위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강압적이고 일원적인 언어 정책에 반대하고 '아래로부터 위로의' 자연스럽고 다원적인 통합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정 기간 동안은 전국적 공통어와 방언의 상호 공존과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각 지역의 방언도 '공통어문'의 병음법과 자모를 기초로 삼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방언문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신중국문'을 전 중국 공용의 '주요한 문자'로 삼고, 각 지역의 방언문은 해당 지역 민중들이 전용하는 '보조 문자'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6) 趙顯國, 《瞿秋白 文學思想 研究 - 魯迅과의 文化的 連帶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160쪽 참조.

각 지방의 방언의 경우 어떤 방언이 실생활에서 문자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면 이 방언문을 현지의 문자로 제정할 수 있다.(물론 방언문의 병음 방법과 자모는 '공통어문'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중국의 공통어문'은 장차 전체 중국의 공용문자가 되어야 하며, 각 지방의 방언문은 현지 민중들이 전용하는 문자가 되어야 한다. '新中國文'은 중국의 '주요한 문자'이며, '新上海文', '新北平文', '新廣州文' 등은 해당 지역의 '보조 문자'로 삼을 수 있다. 우리의 이 초안은 바로 '새로운 중국의 공통어문'을 초안을 잡으려는 실험의 일종이다. 따라서 상세한 토론과 수정을 거쳐 철저한 문자혁명을 촉발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sup>7)</sup>

이처럼 그는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방언문을 사용하고, 전국적인 정치·경제·문화 영역에서는 전국적 공통어를 사용하면서 상호 간의 공통분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통어 형성 전략이라고 보았다.<sup>8)</sup>

## 2. 新中國文의 字母

### 1) 〈新中國文字母表〉

〈新中國文字母表〉에서는 자모의 서법(인쇄체 대문자와 소문자, 필기체 대문자와 소문자), 자모의 명칭, 자모의 독음, 자모의 표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모의 서법과 명칭은 라틴자모의 일반적인 용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반면에 독음은 라틴자모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注音符號'와 한자로 표기하고 있다.

a=ㄚ(阿), b=ㄅ(拔), c=ㄘ 또는 ㄑ(痴 혹은 雌), d=ㄉ(德), e=ㄜ(厄), f=ㄈ(弗), g=ㄍ(格), h=ㄏ(黑), i=ㄨ(伊), j=ㄐ(移), j̇=ㄑ(日), k=ㄎ(克), l=ㄌ(勒), m=ㄇ(末), n=ㄋ(訥), o=ㄛ(喔), p=ㄆ(潑), q=ㄑ(額), r=ㄖ(兒), s=ㄙ 혹은 ㄨ(詩 혹은 絲), t=ㄊ(忒), u=ㄨ(烏), v=ㄨ(物, 南方音), w=ㄨ(無), x=음이 없는 것으로 중복되는 음절을 나타내는 역할만 한다. y=ㄩ

7) 《新中國文草案》·〈緒言〉, 424쪽.

8) 拙稿, 〈瞿秋白的 '현대적 공통어'의 新中國文 연구〉(《中國文學研究》 第39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2009. 12) III장 2절 참조.

(迂), z=ㅈ 또는 ㄱ(知 혹은 資).<sup>9)</sup>

〈新中國文字母表〉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자모의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신중국문의 자모는 Esperanto의 자모를 대체적인 표준으로 삼아서 필요한 변화를 준 것이다. 이는 중국이 외국어의 단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편리하게 해준다. 독음과 쓰기법도 Esperanto와 거의 완전히 같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중국문은 Esperanto화된 중국문자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중국 지식인들은 새롭게 다가오는 '세계'와 교감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언어문자 체계가 적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중화'를 뛰어넘어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보편적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모색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각 민족어의 한계를 뛰어 넘어 국제적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 공용어를 지향하는 'Esperanto'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5·4 신문화운동 시기에 오면 신문화운동가와 아나키스트를 중심으로 'Esperanto' 채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어문개혁론자들이 한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어문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보다 보편적인 언어문자 체계 속에서 그것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sup>11)</sup> 특히 'Esperanto'의 자모 체계와 그것이 지향하는 '학습의 용이함'과 '평등과 개방의 가치'는 중국의 어문개혁론자들에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신중국문은 Esperanto화된 중국문자"라는 구추백의 언급은 자신의 방안이 자모 체계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Esperanto'의 정신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안에는 중국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자모

9) 《新中國文草案》·〈新中國文字母表〉 426쪽.

10) 《新中國文草案》·〈新中國文字母表〉 426쪽.

11) 拙稿, 〈신문화운동시기 언어문자 개혁론과 'Esperanto'〉, 《中國文學研究》 第37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2008. 12. 207쪽과 227쪽 참조.

체계와 대중들이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병음체계를 통해 '평등과 개방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추백의 어문개혁과 사회변혁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2) 〈新中國文聲母表〉와 〈新中國文韻母表〉

먼저 〈新中國文聲母表〉에서는 신중국문의 성모(자음)를 다음과 같이 모두 다섯 종류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脣音(입술소리)	舌音(혀소리)	喉音(설근음)	軟音(설면음)	齒音(잇소리)
b p m f w	d t n l r	g k q h	ĝ ĉ ŝ j	z c s ĵ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명칭과 분류 방법은 세밀하고 과학적인 것 이라기보다는 단지 기억하기 편하고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설근음임을 나타내기 위해 자모 위에 별도의 부호 “˘”를 표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중국문의 성모 표기가 Esperanto 뿐만 아니라 국제음성기호도 참조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모 분류에 ‘捲舌音’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전국 공용의 문자를 만들면서 동시에 전국 각 지방의 방언을 표기하는 문자로도 사용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는 권설음에 취약한 중국 남방 사람들도 『草案』의 라틴화 방안에 근거하여 어문 생활을 할 수 있도록”<sup>12)</sup> 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전국적인 영향력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각 방언 구역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한편 〈新中國文韻母表〉에서는 신중국문의 운모(모음)를 다음과 같이 모두 네 종류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12) 趙顯國, 《瞿秋白文學思想研究-魯迅과의 文化的 連帶를 중심으로》, 127~128쪽.

簡單韻母	鼻音韻母	複雜韻母	複雜的鼻音韻母
a(阿 ㄚ) …… an(安 ㄢ)		ia(伊阿   ㄚ-呀) …… ian(伊安   ㄢ)	
o(喔 ㄛ) …… on(翁 ㄨㄣ)		io(伊喔   ㄛ-唷) …… ion(伊翁   ㄨㄣ)	
e(厄 ㄝ) …… en(恩 ㄣ, 鞏 ㄣ)		ie(伊厄   ㄝ-耶) …… ien(伊安*   ㄣ)	
i(伊  ) …… in(音   ㄣ, 英   ㄣ)		ua(烏阿 ㄨㄚ-哇) …… uan(烏安 ㄨㄢ)	
u(烏 ㄨ) …… un(溫 ㄨㄣ)		ue(烏厄 ㄨㄝ-喂) …… uen(烏安* ㄨㄣ)	
y(迂 ㄩ) …… yn(韻 ㄩㄣ)		ye(迂厄 ㄩㄝ-月) …… yen(迂安*   ㄣ)	
		ae(阿厄 ㄚ-哎) …… aen(安 ㄢ)	
		ei(厄伊 ㄝ-欸)	
		ao(阿喔 ㄞ-噢)	
		ou(喔烏 ㄨ-歐)	
		iu(伊歐*   ㄨ)	
		iao(伊噢   ㄞ)	
		uae(烏哎 ㄨㄞ)	

### 3. 新中國文的 規則

#### 1) 〈拼音規則〉

〈拼音規則〉에서는 총 18개 항목에 걸쳐 각종 병음규칙과 표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성조 처리 원칙

〈拼音規則〉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성조 표기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sup>13)</sup> 주지하다시피 성조는 성모, 운모와 함께 한어의 어음이 독자적인 의미와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주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한어의 어음을 자모로 표기하고자 할 경우 성모와 운모뿐만 아니라 성조에 대해서도 나름의 표기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역대의 한어 병음방안들은 주음자모 방안처럼 성모나 운모와는 다른 별도의 성조 표기부호를 만들어 병기하는 방안을 고안해 내거나 국어로마자 방안처럼 성모나 운모에 사용된 자모와 동일한 자모를 활용하여 성조를 표기하는 방안을 고안해 내곤

13) 구체적인 성조 표기법과 사례에 대해서는 〈拼音和書法的說明〉 부분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했다. 이는 모두 성조를 한어 어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구추백은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처음 발표할 때부터 성조를 특별한 ‘重音(accent)’, 즉 외국어의 악센트와 같은 일종의 음조 변화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굳이 병음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모든 성조를 자세하게 표기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五聲은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음조의 변화에 불과하며 외국어에서의 ‘악센트’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라틴화시킨 중국자모에서는 그러한 세밀한 구분을 병음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라틴화시킨 중국문이 ‘五聲’을 병음법 안에 완전하게 보존하게 되면 그 병음법은 틀림없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sup>14)</sup>

다만 중대한 의미상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모음이나 자음 또는 n의 중복 표기로 변별성을 부여하면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daa(打)처럼 모음을 중복 표기하여 해당 모음을 강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ddao(稻)처럼 자음을 중복 표기하여 해당 자음을 강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cenn(趁)처럼 鼻音韻母 뒤에 n을 중복 표기하여 해당 비음을 좀 낮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어음으로 인한 의미의 혼동을 피하면 된다고 주장했다.<sup>15)</sup>

## (2) 자모 줄여 쓰기법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자모를 줄여서 표기하는 법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는 모두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운모 뒤에 z, d, t, l, g, j, s, zh만 써서 마지막 음의 표기를 생략함과 동시에 해당 어휘의 품사도 나타내는 방법이다.

1. 명사의 어미(字尾) z — 桌子는 zoz로 표기하는데, 이 경우 z 뒤에는 e가 생략된 것이다.

14) 《瞿秋白文集·文學編3》·〈中國拉丁化的字母〉, 352쪽.

15) 《新中國文案》·〈拼音規則〉, 433쪽 참조.

2. 형용사의 어미 d -- 大的는 da<sup>2</sup>d로 표기하는데, 이 경우 d 뒤에는 e나 i가 생략된 것이다.
3. 부사의 어미 t -- 很快地는 hen kuaet로 표기하는데, 이 경우 t 뒤에는 e나 i가 생략된 것이다.
4. 동사의 어미 l -- 去了는 cy<sup>2</sup>l로 표기하는데, 이 경우 l 뒤에는 e가 생략된 것이다.
5. 동사의 어미 zh -- 開着는 kaezh로 표기하는데, 이 경우 zh 뒤에는 o가 생략된 것이다.
6. 특별한 명사의 어미 zuj -- 民權主義는 mincyenzuj로 표기하는데, 이 경우 zuj 뒤에는 i가 생략된 것이다.
7. 상용자의 마지막음(尾音) j -- 所以는 soj, 可以는 koj로 표기하는데, 이 경우 j 뒤에는 i가 생략된 것이다.
8. 상용자의 마지막음(尾音) g -- 這個는 zeig, 那個는 nag로 표기하는데, 이 경우 g 뒤에는 e가 생략된 것이다.
9. 상용자의 마지막음(尾音) s -- 就是는 gius, 或是는 hos, 即使是는 gis, 假使는 gias로 표기하는데, 이 경우 s 뒤에는 e가 생략된 것이다.<sup>16)</sup>

두 번째 유형은 운모 앞에 z, j, r만 쓰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之前은 zci en으로, 以前은 jci en으로, 而且是 rci e로 표기하는데 해당 자모의 독법은 첫 번째 유형과 같다. 세 번째 유형은 자주 사용하는 글자의 경우에는 성모만 쓰고 운모는 쓰지 않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是는 s, 只是 z, 底는 d, 個는 g, 以는 j, 而是 r, 可是 k, 和는 h로만 표기하는 것이다. 마지막 유형은 같은 한자가 중첩된 단어의 경우 반복되는 음절은 x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亂哄哄의는 luenhonxd로 調查調查는 diaoca-xx로 표기하는 것이다.<sup>17)</sup>

이러한 자모 줄여 쓰기법은 단순히 병음 표기를 간략하게 해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용빈도가 높은 상용자를 특정 자모로 표기함으로써 다른 동음자와 구별지어줌과 동시에 해당 어휘의 품사와 성격을 시각화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병음 표기뿐만 아니라 동음이의어 감소와 어휘의 문법적 표지 강화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언문일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중들의 실제 구두음을 병

16) 《新中國文案》·〈拼音規則〉, 434쪽.

17) 《新中國文案》·〈拼音規則〉, 434~436쪽 참조.

음으로 알기 쉽게 표기한다는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기본 원칙과 위배되는 것으로서 대중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문언문' 규칙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 (3) 외국어 표기법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외국 단어의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외국 단어는 직접 에스페란토의 병음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독음은 신중국문의 일반 규칙을 따른다고 했다. 예를 들면 'philosophy'를 '菲洛索菲'나 '哲學'보다는 'filosofi'로, 'democracy'는 '德莫克拉欺'나 '民權'보다는 'demokraci'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sup>18)</sup>

이는 19세기 말 이래의 어문개혁운동 과정에서 줄곧 쟁점이 되어왔던 외국 단어의 표기법 문제에 대한 구추백의 대안이기도 했다. 중국의 어문개혁운동은 단순히 언어와 문자를 개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서구의 근대문명을 효과적으로 수용 소개하고 나아가 중국문화를 개혁하고 재창조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서구 근대문명의 핵심적인 사상과 사물들을 담고 있는 어휘들의 수용과 번역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문제는 이들 외국 어휘들의 수용과 번역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한자 번역어들은 그것이 음역어이든 아니면 의역어이든 막론하고 원래의 독음뿐만 아니라 의미까지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sup>19)</sup> 이 때문에 한자로 억지로 번역하기보다는 원형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 중국의 서면어가 한자표기를 고수하는 한 이중문자체계를 갖게 되어 서면어가 통일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한자 표기를 고수하는 쪽에서는 서구의 어휘들을 한자어로 번역해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자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라틴자모로 서면어를 표기하게 되면 이중문자체계로 인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라틴자모 방안을 채용하고 서구의 어휘를 원형 그대로 표기한다고 하더

18) 《新中國文案》·〈拼音規則〉, 436쪽 참조.

19) 拙稿, 〈瞿秋白的 '현대적' 공통어의 '新中國文' 연구〉, 101~102쪽 참조.

라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서구 각국이 사용하는 자모의 독음 편차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혼란이었다.<sup>20)</sup> 이 때문에 라틴자모 방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해당 어휘들을 원형 그대로보다는 에스페란토로 번역하여 표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구추백의 입장은 바로 이러한 견해를 수용·발전시킨 것이었다.

## 2) 〈書法大綱〉

〈書法大綱〉에서는 총 9개 항목에 걸쳐 신중국어문의 붙여쓰기와 띄어쓰기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추백은 신중국어문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한자를 어근으로 삼으며, 가능한 한 단음자보다는 다음자 사용을 권장한다고 했다. 그리고 단어의 병음법을 보통 병음법과 특별 병음법으로 구분했다. 즉 ‘人’과 같은 단음절어는 ‘jen’처럼 개별 한자의 병음을 단독으로 표기하지만, ‘智識’과 같은 다음절어는 ‘zese’처럼 여러 한자의 병음을 이어서 쓰며 하나의 단어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래부터 다음절어였던 단어 이외에도 ‘增加’처럼 의미상 가까운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大小’처럼 의미상 상반된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電燈’처럼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大門’처럼 형용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 ‘深紅’처럼 부사와 형용사 또는 ‘痛哭’처럼 부사와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生氣’처럼 동사 뒤에서 붙어서 단어를 보완해주는 것을 새로운 단어로 간주하고 사용하거나 ‘賣國’처럼 동사성 명사로 간주하고 사용하는 단어 등도 항상 붙여쓰기를 하며 하나의 단어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剩餘價值’나 ‘資產階級’처럼 과학이나 정치 분야의 전문술어 및 모든 추상명사와 심오한 단어는 각자 그것의 의미와 용도에 따라서 이어서 쓸 것인지 띄어서 쓸 것인지를 결정하며, ‘豈有此理’처럼 백화에서 응용할 수 있는 모든 文言成語 중에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는 것은 이어서 쓴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중국어문의 어두와 어미의 쓰기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했

20) 拙稿, 〈錢玄同의 ‘Esperanto’ 채용론〉, 《中語中文學》 제43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8. 12. 405~406쪽 참조.

다. 먼저 어두의 쓰기법은 '新中國文(sin-Zongowen)'처럼 어두 뒤에 짧은 선을 긋거나 '反革命(faengemin)'처럼 뒤에 오는 단어와 직접 이어서 쓰거나 할 수 있다. 어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資本家'의 '家'처럼 의미상의 어미이고, 다른 하나는 '大的'의 '的'처럼 문법상의 어미이다. 의미상의 어미는 사실상 어근이므로 병음법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문법상의 어미는 줄여서 쓰는 '예외적 쓰기법'에 따른다. 의미상의 어미나 문법상의 어미는 모두 이어 써야 한다. 그리고 어미를 쓸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어미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자로 쓴 서면어의 경우 한자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어음과 의미를 갖고 있다는 문장관념 때문에 띄어쓰기를 해오지 않았다.<sup>21)</sup> 그러나 소리글자인 라틴자 모로 한어를 표기할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하나의 음절인지를 구분해주는 표지가 없으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라틴화 신문자 방안처럼 진정한 백화문에 기초한 것일 경우에는 실제 구두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다음절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어인지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라틴화 신문자 방안에서 문장의 쓰기법 규정, 특히 띄어쓰기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문장이 아니라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진정한 백화문에 기초한 것이었다는 점과도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 즉 보고 이해하는 문장에서 읽고 들어서 이해하는 문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문장을 일정 단위마다 끊어 읽거나 쓰는 구두법(句讀法)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구두법에 따른 띄어쓰기의 도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라틴자모로 한자의 어음을 표기할 경우 단어의 길이가 길어져서 시각적으로 단어를 기억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21) 띄어쓰기를 하려면 품사의 구별이 있거나 문장성분이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한자는 기본적으로 글자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품사나 문장성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문장 자체를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한자와 한문은 고도의 반복학습과 암기를 통해 문자생활을 체득한 소수의 식자층(識字層)에 국한된 소통수단이였다. 이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거나 문장부호를 사용함으로써 문장의 가독성을 높여 주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http://blog.naver.com/bywest/53482058> 참조

데 적지 않은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시각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고 빨리 읽을 수 있으며, 기억하기도 쉽고 정보전달에도 유리한 띄어쓰기를 도입했던 것이다.<sup>22)</sup>

### 3) 〈文法規則〉

〈文法規則〉에서는 총 12개 항에 걸쳐 각각의 품사와 뒤에 오는 문법적 요소에 따른 붙여쓰기와 띄어쓰기 규칙, 그리고 몇 가지 문법 성분의 자모 표기법과 약정 부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sup>23)</sup>

1. 대명사 “他, 她, 它”는 각기 ta, ji, te로 서로 다르게 표기하며, 추상명사와 국명, 지명, 동식물 이름 등은 성별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 모두 ‘te(它)’로 표기한다.
2. 동사 어미 ‘了’는 동사나 동사용 형용사 바로 뒤에 올 때는 붙여 써야 하지만 명사 뒤에 올 때는 띄어 써야 한다.(他吃了飯-Ta ce/ faen. 太大了-t ae da/.)
3. 동사와 형용사 뒤의 ‘得’은 붙여 써야 한다.(打得半死-dade baensee. 大得多了-dade dol.)
4. 동사와 단음의 보어는 붙여 써야 하지만 복음의 보어는 띄어 써도 된다.(看清 kaencin, 看清楚 kaen cincu)
5. 명사 소유격의 ‘的’은 띄어 써야 한다. 생략할 경우에는 “”으로 대체할 수 있다.(中國政府-Zongo d zenfu. 中國美國和日本的政府-Zongo’ Mei go’ h jeben d zenfu.)
6. 꾸미는 단어 뒤에 오는 ‘的’은 붙여 써야 한다. 생략할 경우에는 대체 부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民權主義的革命-mincyenzuj d gemin.)
7. 대명사 소유격의 “的”은 붙여 써야 한다. 생략할 경우에는 “”로 대체해야 한다.(他的父親-tad fucin. 他父親的朋友-ta’ fucin d penju.).
8. 형용사(형용사 성질의 동사) 어미의 ‘的’은 동사 바로 뒤에 올 때는 붙여 써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한다.(我吃的飯-wo ced faen. 吃飯的客人-ce faen d kejen.)

22) 라틴화 신문자 방안은 기본적으로 띄어쓰기를 하는 옛 소련의 라틴자모 방안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3) 구주백이 사용하고 있는 문법 용어들 중에는 현행 문법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이 경우 본 논문에서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모두 현행 문법 용어를 기준으로 삼아 바로잡았다.

9. 방위사 뒤의 “的”은 띄어 써야 한다. 생략할 경우에는 대체 부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桌子上的花瓶-zoz san d huapin.)
10. 모든 양사 앞에는 짧은 선을 그어야 한다. 단 “個, 次”는 수사와 붙여 쓸 수 있다.(兩把刀 lian-ba dao, 三個人 saeng jen)
11. “些” 자는 비교의 의미로 쓰인 경우에는 앞에 짧은 선을 그어 주어야 하지만 많은 수를 나타낼 때는 붙여 써야 한다.(這本書比那一本好些. Zei-ben su bih nai-ben hao-sie. 他有些書. Ta ju haosie su.)
12. 전치사 “比, 替, 把”에는 음이 없는 h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문법을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我替你去. Wo tih ni cy.)<sup>24)</sup>

이는 기본적으로 〈書法大綱〉과 마찬가지로 병음자모의 붙여쓰기와 띄어쓰기에 관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書法大綱〉이 다음절어의 구성 양식과 성격이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의 단어는 이어서 쓴다는 기본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면 〈文法規則〉은 각각의 품사와 문법적 요소의 기능에 따른 붙여쓰기와 띄어쓰기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文法規則〉은 붙여쓰기와 띄어쓰기, 특정 자모와 약정 부호와 같은 시각적 표지로 해당 자모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추백은 이러한 규칙을 통해 신중국문의 문법을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자모의 문법적 기능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칙이라기보다는 특정 품사와 문법 요소의 결합 형태에 따라 적용 방식을 달리하는 규칙이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文法規則〉은 일정한 문법상의 표지로 신중국문의 문법적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일지는 모르나 결합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붙여쓰기와 띄어쓰기 규칙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방안이었다. 더욱이 대명사 “他, 她, 它”의 서로 다른 병음 표기 규칙은 병음자모를 통한 한자 어근의 연상과 의미 유추 과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자를 어근으로 삼아 그것의 독음을 병음자모로 표기한다는 신중국문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었다.

24) 《新中國文草案》·〈文法規則〉, 441~443쪽 참조.

## 4) 〈拼音和書法的說明〉

〈拼音和書法的說明〉에서는 신중국문의 병음법과 예외적인 쓰기법에 대한 기본 규칙과 해당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1) 병음법

병음법에 관한 설명 부분에서는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서 어문개혁론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성조 처리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sup>25)</sup>

구추백은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성조 처리 방법에 대해 크게 보통 병음법과 특별 병음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보통 병음법은 성조를 표시하지 않는 병음법이다. 이는 한어에 본래 존재하는 성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병음부호로 표기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自然’은 별도의 성조 표기 없이 ‘ziran’으로만 표기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4성인 ‘自’와 1성인 ‘資’의 병음표기가 같아지지만 굳이 병음법으로 성조를 구분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自然’을 ‘資然’으로 읽을 리 없듯이 ‘ziran’이라는 신중국문을 보면 이것이 바로 ‘自然’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ziran’은 당연히 ‘zírán’으로 읽어야지 ‘zírán’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특별 병음법은 성조를 표시하는 병음법이다. 일반적인 것은 성조를 병음법에 표시할 필요가 없지만 몇몇 한자는 동음자가 많고 독음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조를 표시하는 특별 병음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백화에서 한자는 본래 ‘어근’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3성인 ‘想’은 ‘思想’의 뜻이다. 따라서 ‘想’자와 결합된 새로운 단어는 모두 ‘思想’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 ‘想’자는 ‘想念, 想望, 痴想, 幻想’ 등처럼 모두 상당 부분 3성의 음조를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4성인 ‘像’자는 ‘類似’의 뜻이다. ‘像’에서 발전해 나온 새로운 단어들은 한편으로는 모두 ‘類似’의 의미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4성의 음조를 상당 부분 보존하고 있다. 이것을

25) Jerry Norman 지음, 全廣鎮 옮김, 《중국언어학총론》, 東文選, 1996. 374쪽 참조



‘思想’이나 ‘互相’의 의미와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는 없으며, 3성의 ‘想’과 1성의 ‘相’이 서로 혼동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따라서 성조를 표시하는 특별 병음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추백은 특별 병음법에 따라 성조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모두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韻母 중에 모음 하나를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3성과 2성을 표기한다. 둘째, 자음을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4성을 표기한다. 셋째, 韻尾의 n을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4성을 표기한다. 넷째, 몇몇 어근은 이와 별도의 형식인 일종의 ‘예외적’ 특별 병음법으로 성조를 표기한다.

- 1) 모음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성조를 나타내는 어근은 모두 145개로 예를 들면 飽 baao, 補 buu, 馬 maa, 買 maee 등이 있다.
- 2) 자음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성조를 나타내는 어근은 모두 24개로 예를 들면 富 ffu, 跳 ttiao, 左 zzo 등이 있다.
- 3) n을 중첩하는 방식으로 성조를 나타내는 어근은 모두 40개로 예를 들면 病 binn, 凍 donn, 唱 cann 등이 있다.
- 4) ‘예외적’ 방식으로 성조를 나타내는 어근은 모두 18개로 예를 들면 羊 jia n, 夜 jie 爲 we 등이 있다.<sup>26)</sup>

구추백은 이처럼 특별 병음법이 적용되는 어근은 모두 227개이며, 이들 어근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단어에는 일률적으로 특별 병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특별 병음법은 성조를 정확하게 표기해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어근’을 시각적으로 구분해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즉 ‘daa’자의 형체(두 개의 a를 이어서 쓴 것)로 이것이 ‘크다(大)’의 의미가 아니라 ‘두드리다(打)’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추백은 모든 한자의 성조를 세세하게 표기하는 것은 번거롭고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음이 같아서 혼동이 생길 수 있는 몇몇 ‘어근’에 한해서만 특별 병음법에 따라 성조를 표기해 주고 나머지는 보통 병음법에 따라 성조를 표기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26) 《新中國文草案》·〈拼音和書法的說明〉, 451~453쪽 참조.

## (2) 예외적 쓰기법

예외적 쓰기법은 문법상의 의미나 특별한 어미를 표시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자모는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독음법을 갖는다. 예외적 쓰기법은 문법상의 어미, 문법상의 단음 조사, 의미상의 어미, 특별한 단음자 등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법상의 어미에는 z(子), r(兒), d(的), t(地), l(了), zh(着), g(個), s(是 또는 使), j(以)가 있다. z는 명사의 어미, r은 명사 또는 부사의 어미, d는 형용사의 어미, t는 부사의 어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l은 동사의 어미로서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거나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 zh는 동사의 어미로서 동작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시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g는 這個, 那個, 一個 등에서와 같이 지시대명사의 어미, s는 可是, 或是, 就是, 假使, 即使 등에서와 같이 허사의 어미, j는 以前, 以後, 所以, 可以 등에서와 같이 허사의 어두나 어미를 나타낸다.

둘째, 문법상의 단음 조사에는 z(之, 只), r(而), d(底), l(了), g(個), h(和), k(可, 却)와 음이 없는 h를 붙이는 bah(把), bih(比), tih(替), yh(於), gih(極)이 있다.

셋째, 의미상의 어미에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일반적인 것에는 zui(主義), seh(式), huah(化)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어미는 예외적인 쓰기법을 사용한다. 이외의 어미는 평상적인 특별 병음법을 따른다. 특수한 것에는 술어의 어미, 추상명사의 어미, 기관이나 단체 명칭의 어미가 있는데, 모두 음이 없는 h를 붙일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 쓰기법'은 각각의 과학 분과나 단체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계에서는 hoh로 '貨'자를 대표할 수 있고, 군대에서는 seh로 '師'자를 대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관이나 단체 명칭의 어미로 만들어진 '특수한 의미상의 어미'에는 bu(部), koh(科), cuh(處), soh(所), gyh(局), seh(社), hueh(會), goh(國) 등이 있다. 그리고 전문술어의 어미에는 jeh(業), wuh(物), suh(術), lih(力), lyh(律), cih(氣), tih(體) 등이 있다. 이것들은 정치와 물리학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어미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음이 없는 h는 마지막 음절의 어미에만 붙인다. 예를 들어 '會費'는 'huefeih'로 쓴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예외적 쓰기법은 제한된 의미에 한해서 사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社會'의 '社'와 '會'는 단체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h를 붙이지 않고 'seihue'라고 써야 한다.

넷째, 특별한 단음절어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r'을 붙이는 것이다. 즉 '花'를 'huar', '貓'를 'maor', '狗'를 'gour'로 쓰는 것이다. 이는 '話', '畫', '毛', '溝'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 '兒'자는 읽을 때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한편 '牡丹花'를 'moudaenhuar'로, '獵狗'를 'liegour'로 쓰는 것처럼 의미상의 어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특수한 의미상의 어미'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음이 없는 h를 붙이는 어미를 단음자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這是一種什麼氣? 這是氣氣."라는 대화에서 앞에 쓰인 단음자 '氣'를 '특수한 의미상의 어미'로 쓰이는 'cih'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Zei s i-zon seme ci h? Zei s jancih."라고 쓰는 것이다. 셋째,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음동사 '是'를 '예외적 쓰기법'을 적용하여 's'로 쓰는 것이다. 다만 '是非'에서처럼 추상명사로 사용된 경우에 한해서 'sefei'로 써야 한다.<sup>27)</sup>

이와 함께 그는 동음자를 구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단음절의 동음어에는 어미를 붙여 구분하고, 어미를 붙인 후에도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변성 병음법을 사용하여 구분해 주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과 앞에서 설명한 어근과 단어의 붙여쓰기 규칙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동음자로 인한 혼동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예외적 쓰기법 규정은 '자모 줄여 쓰기법'이나 〈文法規則〉에서처럼 특정 자모를 줄여 쓰거나 병기하는 방식으로 해당 어휘의 문법적 기능과 성격을 시각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중국문의 문법적 정밀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음자로 인한 혼란을 줄여 나가려는 것이었다.

#### 4. 新中國文의 拼音과 漢字 讀音 對照

〈新中國文拼音表〉에서는 신중국문 병음표의 순서와 병음표의 용도, 병음 참조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병음표는 신중국문의 병음인 로마자모로 한자를 검색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하는 한자들의 병음법이 나열되어 있다.

〈漢字檢音表〉에서는 한자검음표의 용도와 순서, 수록 한자의 선별기준, 한자검음표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漢字檢音表〉는 한자로 '신중국문의 병음법'을 검색하는 것으로 각각의 한자는 〈康熙字典〉의 부수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1932년 5월에 南京 교육부가 공포한 〈國音常用字彙〉중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들에 대해 신중국문의 병

27) 《新中國文草案》·〈拼音和書法的說明〉, 453~456쪽 참조.

음규칙에 따라 신식의 병음법을 표기하고 있다.

〈漢字檢音表〉에서 한자를 《康熙字典》의 부수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은 한자에 익숙한 사람들 중에 어문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새로이 병음 문자 방안을 익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과 어색함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보다 쉽게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國音常用字彙〉 중에서 대중들의 실제 구어에서는 사용 빈도가 매우 낮거나 문언에서만 사용되는 생소한 글자들을 제외시킨 것은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철저하게 대중들이 실제로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읽어서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언어와 문자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 IV. 나오는 글

《新中國文草案》은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총결산으로서 신중국문의 취지, 신중국문의 자모에 대한 설명과 사례, 신중국문의 각종 규칙과 설명, 그리고 신중국문의 병음과 한자 독음 대조표 등을 담고 있다. 《新中國文草案》은 이러한 체계적인 구성과 상세한 설명, 그리고 풍부한 사례를 통해 구추백의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가지고 있는 체제와 특징을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여준다.

《新中國文草案》은 한자의 복잡함과 난해함, 구두어와 괴리된 문언문과 백화문, 거의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문자와 언어 등이 대중들의 자유로운 언어 문자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된 것이다. 구추백은 이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문자혁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철저한 문자혁명’은 단순히 한자의 독음을 병음자모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중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구두어의 ‘소리’를 가장 근사하게 담아낼 수 있는 어문체계로의 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형상을 보고 이해하는 문자체계가 아니라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문자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그것은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이나 ‘官話’와 한자에 익숙한 소수 지식인들의 입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언과 성조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객관적인 어문 현실과 문맹 대중들의 실제 요구에 기초한 문자혁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新中國文草案》은 이러한 당시의 객관적인 어문 현실과 요구에 의거하여 절대 다수 대중들의 문맹을 해소하고 전국적 공통어를 구축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방안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新中國文草案》은 공통어와 방언의 공존을 장려하고, 일률적인 성조 표기를 거부하고, 띄어쓰기 규칙을 확립하는 데 많은 주의를 기울여 나갔던 것이다.

이와 함께 《新中國文草案》은 라틴화 신문자 방안의 문법체계 확립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新中國文草案》을 보면 구추백이 각각의 품사와 뒤에 오는 문법적 요소에 따른 붙여쓰기와 띄어쓰기 규정, 그리고 몇 가지 문법 성분의 자모 표기법과 줄여 쓰기 및 약정 부호 규정 등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법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신중국문의 문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함으로써 라틴화 신문자 방안으로 작성된 문장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것이었다. 하지만 구추백이 이처럼 각종 문법 규정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라틴화 신문자 방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다수의 동음자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데 있었다. 즉 구추백은 병음자모를 사용하고 성조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가중될 수밖에 없는 어의 파악의 어려움과 혼란을 강화된 문법 체계로 최대한 해소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은 상용자를 특정 자모로 표기하고, 어휘의 품사와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표기법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시각적 표지 규정을 고안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들 중에는 실제 사용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자모 줄여 쓰거나 대체 표기, 단음절어의 인위적인 다음절어화 등은 언문일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라틴화 신문자 방안을 또 다른 차원의 '문언문'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新中國文草案》은 1930년대 중국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된 사회변혁과 그에 따른 새로운 어문체계에 대한 요구, 즉 대중의 진보적인 의식을 자유롭게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어문체계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것은 19세기 말 이래 중국 어문개혁 운동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종래의 정치적 소외에서 벗어나 사회변혁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구추백의 《新中國文案》은 언어·문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瞿秋白文集·文學編 3》，人民文學出版社，1985
- 鄭林曦，〈普通話和新文字的唱導者 - 瞿秋白〉，《瞿秋白研究文集》，陳鐵健 等編，中共黨史資料出版社，1987
- 顧祖年，〈略論瞿秋白研究中國語言文字的歷史背景和影響〉，《瞿秋白研究1》，瞿秋白紀念館 瞿秋白研究會，1989
- 葉楠，〈瞿秋白對語言理論的貢獻〉，《瞿秋白研究2》，瞿秋白紀念館編，學林出版社，1990
- A.Г.施普林欽 著，馬貴凡 譯，〈瞿秋白與拼音文字〉，《瞿秋白研究7》，瞿秋白紀念館編，學林出版社，1995
- 黎錦熙，〈國語運動史綱〉，上海，商務印書館，1934
- 倪海曙 編，〈中國語文的新生〉，《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民國叢書》第二編 52，上海，上海書店，1989
- 周有光，〈漢字改革概論(第三版)〉，北京，文字改革出版社，1979
- 文振庭 編，〈文藝大衆化問題討論資料〉，上海文藝出版社，1987
- 高天如，〈中國現代語言計劃的理論和實踐〉，復旦大學出版社，1993
- 倉石武四郎 著，金鍾五 譯，〈漢字的運命〉，正音社，1974
- 오시마 쇼지 지음, 장원철 옮김, 《한자에 도전한 중국》, 산처럼 출판사, 2003
- 다케다 마사야 지음, 서은숙 옮김, 《창힐의 향연-한자의 신화와 유토피아》, 도서출판 이산, 2004
- Jerry Norman 지음, 全廣鎭 옮김, 《중국언어학총론》, 東文選, 1996
- 趙顯國，〈瞿秋白 文學思想 研究-魯迅과의 文化的 連帶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상원, 〈신문화운동시기 언어문자 개혁론과 'Esperanto'〉, 《中國文學研究》 第37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2008. 12.
- 김상원, 〈錢玄同의 'Esperanto' 채용론〉, 《中語中文學》 제43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8. 12
- 김상원, 〈瞿秋白의 '현대적 공통어의 新中國文' 연구〉, 《中國文學研究》 第39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2009. 12
- 김상원, 〈瞿秋白의 '라틴화 新文字 方案' 연구〉, 《中國文學研究》 第40輯, 서울, 韓國中文學會, 2010. 6

### 【中文提要】

《新中國文草案》可以說是瞿秋白的拉丁化新文字方案的總結。它在二十世紀中國語文改革運動史上建立了新的路標。《新中國文草案》包括新中國文的基本趣旨、字母表、拼音規則、文法規則、書法大綱、拼音和書法說明、拼音表、漢字檢音標。它以系統的體例、詳細的說明以及豐富的事例，最完整地顯示出瞿秋白的拉丁化新文字方案的整體結構和特色。

第一、《新中國文草案》是爲了“徹底的文字革命”所擬定的。“徹底的文字革命”不儘儘是把漢字的讀音寫出拼音字母的，而且是以人民大眾實際使用的口頭語作爲基礎採用拼音文字制度的，就是說，它是以新的文字規範和文章規範重新建立真正的現代書寫語言的。

第二、《新中國文草案》特別注重拉丁化新文字方案的文法體系的建立。一系列文法規定不但使新中國文的文章結構更完整，而且使大眾可以更明確地了解用新中國文的意思。特別是再加上這一系列文法規定有系統的方法解決了同音異議語問題。

第三、《新中國文草案》是爲了積極響應一九三零年代隨着社會變革要求所擬定的。就是說，它是爲了建立可以把人民大眾的進步意識自由地表現出來的語文體系所擬定的。因此，它具有除了言語文字方面的價值以外，還有很大的社會文化方面的意義。

**【主題語】**

瞿秋白, 新中國文案, 拉丁化新文字, 文字改革, 社會變革

투고일: 2010. 11. 13 / 심사일: 2010. 11. 20~12. 9 / 게재확정일: 2010. 12. 15